

노년기 소비자의 경제생활 위기와 위기 극복을 위한 재취업 활성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urrent Economic Crisis and Solution to
Re-employ Senior Consumer

Yeon Jeong Kim*

Department of Digital Technology Management, Hoseo University, Hoseo-ro 12, Dongnam-gu, Cheonan,
Korea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socio-economical needs to re-employment after retirement through the aged senior job's participation. Research methods involved applying contents analysis and Focus group interview and research problem analyzed economical participation factors, satisfaction degree of senior job's program, various socio-economical participation needs and participation intention of social enterprise. The result were as follows. The motivation of senior job's participation were labor income after retirement and participation social activity. Publicity and educational traits of senior jobs were very important factor and the aged had pride of professional job program and had strong attitude to communicate the job experience with former job program participant. A participants showed high credibility of public policy to enhance aged economic status and suggested emotional support by partner and children. They agree the publicity between senior job and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had more business profitability and job professionalism.

Key words: aged consumer, economical crisis, activating re-employment, quality of life, senior jobs and social enterprise

* Tel. +82-041-560-8352. Fax. +82-041-560-8338. E-mail. yjkim@hoseo.edu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Nov. 26, 2014 / Revised: Dec. 11, 2014 / Accepted: Dec. 22, 2014

국문초록

한국 노년기 경제생활의 구성요소를 분석해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 수혜율이 적고 은퇴준비가 취약하여 많은 노년기 소비자들은 은퇴이후 재취업을 통한 기초 생활비인 근로소득 획득을 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소비자의 경제생활 위기 현황을 분석하고 노년 소비자들이 은퇴이후에도 재취업을 해야 하는 사회적 경제적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일자리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에 대한 표적집단면접과 내용분석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 동기 및 취업영역, 취업조건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인 소비자들의 참여니즈와 최근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재취업 영역인 사회적기업의 참여의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자리사업 참여 동기로 은퇴이후 근로소득의 필요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일자리사업의 임금수준 향상과 지속적으로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되길 가장 많이 희망했다. 또한 일자리 사업의 공공성, 교육성과 복지성을 포함한 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긍심과 해당 분야의 직무경험을 공유하는 적극성을 나타냈으나 낮은 임금수준은 노인들의 경제적 위기를 보완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재취업 참여자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시간제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공공정책을 신뢰하였으며,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독립과 기초 생활비 마련이 우선시되었다. 사회적 기업의 참여관심 및 의향에 대해 노인소비자들은 일자리사업과 유사한 재취업영역으로 판단을 하였고 두 제도의 공공정책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노년기 소비자, 경제생활위기, 재취업 활성화, 삶의 질, 일자리사업

1. 서론

2014년 통계청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2.7%이며 향후 2020년 15.7%, 2026년 20.8%, 2030년 24.3%, 2060년 40.1%로 추정하는 등 한국사회의 초고령화의 추이를 발표하였다. 한편 경제적 안정성의 대표 변수인 고용률은 2013년 기준 55세 이상 47.2%, 65세 이상은 30.9%로 나타났고, 2014년 4월 기준의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는 55세-79세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55.1%, 고용률 53.9%를 발표하였다(통계청, 2014). 2014년 통계청 자료에서 소득에 대한 불만족은 55세 이상 베이비부머세대의 51.2%, 65세 이상은 58.6%가 불만족하다고 하였으며,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지원 서비스로 응답한 베이비부머세대는 46.4%이고 65세 이상은 25%가 응답을 하였다. 이상의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 뿐만 아니라 1955년~1964년 사이에 출생한 2010년 인구센서스조사 결과 총인구의 14.5%로 대략 695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역시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 은퇴이후의 경제적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대여명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장래에 대한 경제적 위기를 급격하게 인식하고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50대 이상 베이비부머세대 이상의 비율을 고려해 볼 때 중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성은 개인과 전체 가족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 중 많은 비율이 아직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정년이후 경제생활에 대한 불안정감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층에게 당면한 문제가 그들 세대에게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안정적인 노후준비가 이루어진 경우 공적연금(국민, 사학, 공무원 연금)이나 개인자산을 통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지만, 한국의 높은 자녀교육비와 부모의 책임감, 자영업을 비롯한 비정규 임시직 종사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노후 생활비를 준비한 세대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이비부머와 고령자층은 은퇴이후에도 지속적인 취업활동을 통한 근로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 2014년 통계청 자료에서 장래 근로희망 고령층 인구는 62%, 근로 희망 평균연령이 72세로 나타나는 등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고령층의 경제활동 의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60-65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20대를 상회한 것에 극명하게 나타났다(통계청, 2014).

기존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후준비 수준 및 현황, 공적연금, 국민연금제도와 노년기 가계재정 상태와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권혁성·신기철, 2013; 김진곤, 2009; 박소희·전영준, 2013; 양정선, 2013)와 중노년기 일거리 재진입, 일거리 공유, 고용대책과 근로생애에 대한 선행연구(김진곤, 2009; 김재호, 2013; 박상현·강태일, 2013)등에 대한 내용이 주된 연구주제였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삶의 질, 직무만족도, 경제활동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취업 참여 동기에 대한 선행연구(김옥희, 2009; 이소정, 2012; 이주미·김태완 2014; 한석태, 2008; 천재영·최영, 2014)에서 도출된 주요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유형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동기,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심층면접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소비자들의 경제생활 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취업 현황과 재취업 참여 동기 분석을 통해 취업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취업으로 일자리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년기 소비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거리사업의 사회경제적 참여 동기와 노동조건 및 일자리사업의 개선점과 재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참여의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관이나 시니어센터를 주요 연구 타겟으로 구성하였고 이중 노인 일자리사업에 재취업을 하고 준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소비자 12명을 교육/복지형과 공익형으로 구분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노인 소비자들의 재취업 참여 동기와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한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노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향후 은퇴를 하게 될 중년기 가계의 경제생활만족도 및 재취업 기대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노년층의 자아 존중감, 삶의 질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경제적위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노후준비 안내와 이들 중노년층의 은퇴이후 근로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재취업활성화 사업정책에 친수요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제도적 배경

1. 인구 고령화에 따른 중노년기 소비자 가계의 경제위기와 취업 참여 동기

노년기 소비자들의 생활에서 취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이 대표적이다. 활동이론은 노년기에도 이전의 활동 수준을 유지하여 역할감소 및 사회적 관계축소로 유발되는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노년기에도 새로운 역할을 찾고 관계를 맺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지속이론은 노인은 나이가 들더라도 과거에 수행하였던 역할과 유사한 역할 및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성인기 동안 형성된 특성을 지속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한다는 이론이다(이소정, 2012). 이 이론은 노년기에도 성인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를 통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노년기 소비자들이 경제적 위기를 갖는 구조적 이론으로는 생애주기가설(Ando & Modigliani, 1963)이 대표적으로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유년기, 청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및 소비수준의 불룩한 포물선은 노인소비자의 소비성향의 위축을 의미하며, 형성기나 확대기는 교육비의 과중한 부담,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으로 자신의 노년기에 대비할 충분한 자산이나 부를 축적하지 못하게 되어 노년기에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문숙제 외, 1996). 이러한 노인가계의 경제적 위기에 대하여 Crystal & Shea(1990)는 노인가계 소득의 불평등이 비노인가계보다 크며, 이는 노년기 이전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누적된 결과의 구조적 생애주기가설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2014년 고령자통계기준으로 가구주연령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약 183만 원으로 전국 가구평균의 53%에 해당하며 지출은 123만 원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도 최근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7%(519만8천명)로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42만 원이며, 연금수령액은 10만~25만 원 미만이 39.3%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 미만 수령자 비중은 21.2%, 150만 원 이상 수령자는 7.6% 이었다. 2013년 통계청자료에서 노인가구의 소비 구조를 살펴보면 50.6% 이상이 필수생활부문에 쓰여 졌고, 기타 여유 소비력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이 원하는 일자리 선택기준은 임금수준, 지속적인 근로가능여부, 일양과 일하는 시간대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2014년 통계청자료에서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인구는 62.0%로 10명 중 6명꼴이며,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72세였다.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증감현황(2014)에 의하면 50대의 경우 2012년 293천 명, 2013년 225천 명, 2014년 275천 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2012년 214천 명, 2013년 168천 명, 2014년 205천 명으로 25-29세대, 30대가 전년 동기 감소세를 보이고 40대의 취업증가인 67천 명에 비해 그 증가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취업자 수에 있어서도 60세 이상이 2,358천 명으로 30대 초반, 중후반의 각 취업자 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대의 높은 경제활동 취업자 수는 은퇴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이 발생한다는 긍정적인 측면

과 함께, 사회보장적 급여 관점에서 그들이 청장년의 경제활동 세대에 있었을 때 은퇴준비가 충분하지 못해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가능성(김진곤, 2009)으로 고려된다면, 이는 노인 소비자층이 빈곤이라는 취약계층화의 여지가 매우 큼을 제시하는 것이다.

노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4)의 ‘한국의 성별 연금격차 현황’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65세 이상 인구 중 정기적인 연금소득이 있는 개인의 비율은 75.6%이나 평균 연금 금액은 25만 4천 원으로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특히 여성의 53.5%는 다른 공적, 사적 연금 없이 기초노령연금만 받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2011년)에 기반 한 우리나라 중고령자 노후준비 실태를 분석한 권혁성·신기철(2011)은 중고령자 대상자의 16.1%만 공적연금 납부경험이 있었고 조사대상 대부분은 1960년대 급격한 산업화시기에 도시에 유입돼 저렴한 인건비로 경제성장을 견인했지만 노후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세대라며 “국가재정이 양호하다면 이들 중고령자와 앞으로 중고령 세대에 접어들 계층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수혜 폭과 금액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같이 노인 소비자 가계는 각종 연금이나 사회적 지원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고 미래에 대한 재정설계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소비자 가계는 사회보장, 연금준비 부족에 근거하여 은퇴 이후 가족들의 부양에 의존해야 하는 자립적인 경제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2014년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을 주고 싶어서가 54.0%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도 38.8%를 차지했다.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는 전일제가 66.5%, 시간제는 33.5%였으며 희망 월평균 임금수준은 100만~150만 원이 31.9%로 가장 많았으며 150만~300만 원 미만 29.6%, 50만~100만 원 미만 21.8% 등 순이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4개월(남 19년, 여자는 11년 7개월)로 2013년 통계자료와 비교해보면 1년 전 보다 6개월 줄었다. 근속기간이 3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은 15.4%이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연령은 평균 49세로 남자 52세, 여자 48세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사업부진·조업중단·직장휴(폐)업이 34.7%로 가장 많았고, 이를 제외하면 남자는 권고사직·명예퇴직, 여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이들 중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은 15.3%로, 주요 구직경로는 친구나 친지에게 소개를 부탁하는 방식이었으며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은 61.9%였다.

선행연구결과에서 노인들의 취업 참여 동기에 대해 이소정(2012)은 65세 이상 노인 3,583명을 대상 경제활동 특성분석 결과, 생계비마련(79.3%), 용돈마련(6.8%), 건강유지(5.5%), 시간보내기(4.4%)로 나타났고 현재 일하는 노인의 88.5%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의향이 있어 일에 대한 높은 의지를 제시하였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계의 취업 참여율이 더 높았으며 배우자의 존재 여부가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 또는 지속에 주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소득분위별 양극단의 1분위와 5분위가 23%대 인 것에 비해 3, 4분위의 중간층에서 노년기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역 U자형 분포를 보였고, 가구소득수준과 종사 직종 간에 체계적인 연관성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관리자 및 전문가 종사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저임금 저숙련 직종에의 종사 비율이 높긴 하지만 현재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과반수 이상이 경제활동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 경제활동 이외에 노인의 자원봉사, 여가 등 포괄적인 사회참여가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록 저임금 저숙련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삶에 일정정도 만족을 가져다주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2014)은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가능 노년층은 65세 이상 인구가 최저생계비 수준의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의 확대와 퇴직 후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할 수 있는 가교일자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근로가 불가능한 노년층의 경우 저소득의 경우 공적이전지출의 확대와 자산보유 노년층의 경우에는 연금, 역모기지 등 친 고령사회 금융상품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아름·정홍주(2013)는 한일 노인들의 경제적 측면, 신체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의 이용자를 분석하여 한국노인들의 생활수준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주미·김태완(2014)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자산빈곤 분석에서 노인의 자산빈곤보다 소득빈곤이 더욱 심각하며, 독거노인인 경우 빈곤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어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경제수준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종단적 분석에서 많은 노인가구가 소득 및 자산측면에서 한번 빈곤하면 계속 빈곤상태에 있다고 하여 노인가구의 탈 빈곤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석태(2008)는 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에서 자기 효능감, 경제적 만족감, 건강 자부심 순으로 주관적 변수들이 객관적 변수보다 삶의 질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며, 안정적인 경제수준과 같은 객관적 조건이 매우 나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객관적 변수와 삶의 질 간에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베이비부머의 노후 경제활동 희망과 정책적 지원 모색(양정선, 2013)에서 현재 직업을 가지고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대상으로 퇴직 후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의사가 있는지 의지여부에 대해 여성보다 남성이 낮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행의지가 없음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는 노후준비 계획과 실행에 더 많은 주의를 두었을 가능성과 재정상태에 기초해 퇴직 후 근로를 염두에 두지 않은 긍정적 요소로 교육수준이 낮은 베이비부머보다 근로희망이 낮아진 결론임을 의미한다. 이는 낮은 교육수준의 베이비부머들이 퇴직 후 경제활동을 더 많이 희망함을 의미한다. 또한 IMF로 인한 실직이나 경제적 타격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퇴직 후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들이 경험했던 경제적 손실을 퇴직 후 경제활동을 통해 만회하려는 심리나 IMF 타격으로 인한 경험하게 된 경제활동의 중요성 및 근로의 소중함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길어진 수명만큼 노년기에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노인가계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취업이 필요하고 많은 노인소비자들의 참여하고 있지만, 노동의 질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이 큰 형편이다.

한국노동연구원(2014)이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구조 및 소득 분석결과에서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6명이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도 받지 못하고 있고, 노인 취업자의 76.1%가 비정규직이며, 노인취업자의 46.4%가 자영업자로 이들 중 많은 비중이 영세자영업자인 등 노인 구직자의 일자리의 질이 매우 낮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경제연구원(2014)은 65세 이상 남녀경제활동참가율이 2012년을 기준으로 각각 41.6%, 23.0%로 나타나 고용선진국 평균 19.5%, 10.5%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남녀 고용률도 각각 40.7%, 22.6%로, 고용선진국 평균 18.6%, 10.2%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그 원인으로 소득 취약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졌고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의 증가를 제시하며 노인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소비자에게 맞추어진 일자리로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하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여러 대안 중 한 방안으로 생각했고 이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동기를 분석함으로써 노인들을 재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국내 노인 일자리사업 개요 및 선행 연구고찰 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중노년 고용 증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6)의 주관 하에 제공되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사업으로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공이나 민간부문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는 크게 공공분야(사회공헌형)와 민간분야 일자리(시장진입형)로 구분되는데 공공분야 일자리는 정부가 노인들의 보수 및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일자리이고 민간분야 일자리는 기업이나 각종 물품 및 서비스 판매 수익금에 의해 노인들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로 구분된다. 사회공헌형은 공익, 교육, 복지형으로 구분되고, 시장진입형은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으로 분류된다.

형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공익형과 인력과건형은 부적인 영향력을 제시하였다.

노인 일자리사업이 본질적으로 갖는 사회보장적 특성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사업보다 비즈니스의 형태를 더 갖춘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제시되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연구원(2011)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거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수익창출 등과 같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내의 정책적 지원은 IMF 외 환위기 이후 민간의 고용창출 악화와 함께 고령화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부족의 보완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2008) 기준에 입각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영리, 비영리적 조직”으로 정의된다. 노인들의 고용창출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기여에 대하여 김상호(2008)는 고령근로자는 근무태도가 좋고, 일에 대한 책임감이 높으며,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고령인력의 활용은 분야에 따라 노동력의 질이나 생산력 대비 비용은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정봉(2010)은 사회적 기업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정규직 노동자가 255만 원, 비정규직 120만 원에 비해 정규직이 132만 원, 비정규직이 93만 원으로 나타나 낮은 월급수준을 제시하였고 사회적기업 종사자 1000명의 노동실태 분석에서 고령자비율이 가장 높은 20.7%로 나타났으며, 20.7%중 15.1%가 가장 높은 비율이 고령여성군 입을 제시하였다. 심창학(2007)은 사회적 기업은 일반 시장에서 기업들이 접근할 수 없고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시장에서의 기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창조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회적 기업은 실질적으로 노인소비자 가계의 경제적 니즈를 충족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의 도출

본 연구에서 수행될 연구문제는 Ando & Modigliani(1963)의 생애주기가설에 따른 많은 노인기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그들의 생애주기 상 경제적 안정도 축소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취업연계를 활동이론과 지속이론으로 노인기에도 여전히 사회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찾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를 통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연계시켰다.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노년부양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퇴직 후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위한 가교 일자리의 필요성(현대경제원, 2014)과 노년기 경제활동

참가율의 3, 4 소득분위가 가장 높은 역U자형의 경제수준별 차이(이소정, 2012), 노인들의 취업의 참여동기로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김옥희 2009; 이소정, 2012)의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비경제적 요인으로는 사회참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활용, 건강을 위함, 시간보내기(김옥희, 2009; 이소정, 2012)가 분석되었다. 또한 배우자의 존재 여부와 사회적지지, 경제적 만족도(김옥희, 2009; 이경진·황선영, 2012; 이소정 2012; 이주미·김태완 2014; 한석태, 2008)가 노인기 삶의 질, 직무만족도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아름·정홍주(2013)는 한일 노인들의 경제적 측면, 신체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의 이용자를 분석하였다. 노인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일자리 유형(교육형, 시장형, 공익형, 인력파견형)의 차이(김옥희, 2009)가 분석되었으며, 노인의 일자리사업 참여자체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력이 제시되었다(천재영·최영, 2014 재인용).

사회적기업이 노인들의 일자리사업의 범위를 확장할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선행연구(김상호, 2008; 이정봉, 2010; 심창학, 2007)의 연구를 통해 노인소비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의 또 다른 기회로서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일자리사업 참여동기, 만족도(일자리사업 참여 동기, 근로조건, 개선사항, 일자리사업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네트워크 및 직장연계에 대한 확신성)

연구문제 2.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배경(취업경험과 일자리사업 참여 연관성, 타 가족원들의 지지, 배우자 유무, 일자리사업 참여 목적)

연구문제 3. 노인들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 참여의향 분석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 노인사회복지관 한곳의 복지서비스 중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 12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법(FGI)을 수행하였다. 정성적 연구방법인 FGI를 수행한 이유는 60세 및 65세 이상 노인들 중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소비자들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기대와 일자리 사업이 노인들의 재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 요인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노인 재취업 분야 및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 개선 사항을 분석하여 재취업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노인사회복지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중노년기의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경제사회적 참여동기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참여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며, 선행연구인 최아름·정홍주(2013)의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노인복지기관 및 시니어클럽 등에서 노인표본을 추출하여 그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으로는 이론적, 제도적 배경에서 논의된 <표 1>의 노인 일자리사업

의 참여유형을 참조하여 사회공헌형인 교육형과 공익형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형은 65세 이하의 전문성을 갖는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전승 효과와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로서 아동교육 파견교육자, 어른신들 경로, 복지관 강사 파견자, 보육교사 도우미 프로그램 대상자중 선발하였다. 공익형은 65세 이상 공공서비스 향상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목적의 일자리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로 본 연구에서는 전통문화 급식도우미, 환경지킴이 프로그램 참여자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두 유형은 노인일자리 사업화의 초기에 사업목적에 따라 구분되어 프로그램화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표적집단면접법은 정성적 자료에 기초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이중 면접내용의 중요 의미소를 중심으로 인터뷰 내용 문구에서 함축적 의미를 찾아내는 내용분석법을 적용하였다(부정남, 1984; Harwood & Garry, 2003). 표적집단면접법은 연구대상의 대표 집단이 될 수 있는 소수의 면접자와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연구방법으로 동일 장소에서 면접자의 진행 하에 조사내용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기법이다. 리딩현상과 쏠림현상의 배제와, 시간안배, 논쟁의 배제라는 중요 원칙하에 적용된다.

Neuendorf(2002)는 내용분석법의 연구절차에 대해 첫 단계로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 연구의 필요성 및 명제나 가설을 제시한다. 두 번째 단계는 연구주제에 대한 개념화 단계로서 내용을 분류하기 위한 범주의 정의, 측정단위에 대한 개념화 작업의 진행, 셋째 단계로 개념화에서 정의된 내용에 바탕 한 조작화 과정을 통한 분류 범주의 명확화, 넷째 단계로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의 검수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은 응답자가 수행한 주관적 질문에 대한 응답자료의 범주화, 비교, 대조 과정을 통해 문장, 단어, 이미지 단위의 자료 분석 절차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다(Kolbe & Burnett, 1991). 내용분석법에서 신뢰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분석결과가 불변해야 한다는 안정성, 상이한 판단 혹은 상황에서 코딩이 재연될 수 있어야 하는 재생산성과 약속된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확도가 요구된다.

노인 일자리사업 프로그램 참여 노인들의 평균연령은 63세였으며, 노인복지기관 담당자에게 연구 내용 및 면접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참여자를 모집하여 여자노인 8명과 남자노인 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표본의 노인복지기관에서 시행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시장진입형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교육/복지형과 공익형 일자리 서비스만 시행되고 있어 이 두 가지 유형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노년기 경제수준 및 일자리사업 참여 동기에 대한 것으로, 향후 중노년

기 일자리사업이 중노년기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와 제시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노인기 소비자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대상자 선정을 위해 경기도 소재 노인전문 복지기관의 일자리사업 교육내용을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고, 일자리사업 중 공익형과 교육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정하였다.

면접 진행대상자는 교육/복지형은 60-64세, 공익형은 65세 이상이 그 대상이었으나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결과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들은 65세 이하였다. 분석은 교육/복지형(사례 1~사례 6)과 공익형(사례 7~사례 12)의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면접녹음자료와 현장 면담기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적집단 면접법의 과정으로 비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한 조당 1시간~1시간 30분간 진행하였다. 녹음을 통해 얻은 중요 어휘, 주제에 대한 의미소 분석을 위해 코드값을 제시하고 자료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의미소 유형, 설명력 점검과 편견의 개입여부 검토(신경림 외, 2004)라는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내용분석법에 기반 한 자료의 코드화 작업에서 관련주제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위해 코딩 결과에 대하여 경기도권 사회적기업 관련 노인복지 전공 대학교수 1인에게 판단을 의뢰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면접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 고찰을 위한 확인과정을 수반하였다. 의미소분석으로 중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문제에 대한 면접 내용을 기술, 이 부분과 연계된 명제를 제언하는 절차를 거쳐 함축된 의미를 도출하였다.

표적집단면접법 수행과정의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으로 연구문제를 분석하였으며, 기본 FGI 분석과정의 질문 내용인 연구문제 1에서 3까지의 연구문제별 분석을 실시한 후 추출한 의미소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내용분석법에 근거하여 그 결과에 기반 한 명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례1부터 사례 12까지의 일자리사업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63세였으며, 남성노인 4명과 여성노인 8명을 참여 연구자로 분석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성별 | 연령 | 배우자유무 | 직장 경험 | 참여 프로그램 | 유형 |
|-------|----|-----|-------|-------|----------|--------|
| 사례 1 | 여 | 63세 | 유 | 유 | 아동교육기관파견 | 교육/복지형 |
| 사례 2 | 여 | 62세 | 유 | 유 | 아동교육기관파견 | 교육/복지형 |
| 사례 3 | 여 | 60세 | 유 | 유 | 어르신교육 파견 | 교육/복지형 |
| 사례 4 | 여 | 63세 | 유 | 무 | 어르신교육 파견 | 교육/복지형 |
| 사례 5 | 여 | 64세 | 유 | 무 | 보육교사 | 교육/복지형 |
| 사례 6 | 여 | 63세 | 유 | 유 | 보육교사 | 교육/복지형 |
| 사례 7 | 남 | 63세 | 유 | 유 | 환경지킴 | 공익형 |
| 사례 8 | 여 | 65세 | 유 | 유 | 급식도우미 | 공익형 |
| 사례 9 | 여 | 65세 | 유 | 유 | 급식도우미 | 공익형 |
| 사례 10 | 남 | 65세 | 유 | 유 | 환경지킴 | 공익형 |
| 사례 11 | 남 | 65세 | 유 | 유 | 급식도우미 | 공익형 |
| 사례 12 | 남 | 66세 | 유 | 유 | 환경지킴 | 공익형 |

12사례 모두 배우자가 있었으며, 사례 1~사례 6의 교육/복지형은 아동교육기관 파견, 어르신교육 파견, 보육교사 프로그램 참여자였다. 사례 7~사례 12의 공익형은 좀 더 나이가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하였고 성별에 따라 참여유형은 여성은 급식도우미, 남성은 환경지킴, 급식도우미의 프로그램 참여자로 나타났다. 일자리사업 이전 직장경험 면접에서는 여성 8명중 2명이 무직, 남성은 모두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12사례 중 직업경험이 83%였으며 여성의 경우 75%가 직업경험자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표 3>의 연구문제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면접 결과에 대한 내용 범주화와 의미소 내용분석<표 4>을 적용하여 면접내용을 분류하고 의미소를 추출하였다.

<표 3> 연구문제의 질의 내용

| 연구문제 | 설문내용 |
|--|--|
| 연구문제 1 일자리사업 경제사회적 참여동기, 만족도 | 1. 일자리사업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제사회적 동기는 무엇인가? 2. 일자리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근로조건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파견자와 정보교류를 한 적이 있는가? 3. 현재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가 지속되는지, 실질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일자리 전문성과 일자리 확보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가? |
| 연구문제 2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배경 | 1.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가? 배우자가 있는가? 2. 일자리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월 최소한의 근로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3. 취업경험이 있는지? 그러한 취업경험이 일자리사업 참여에 영향을 주었는지? 4. 배우자가 계시다면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 하에 일자리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가족원들의 경제적 활동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사회참여 및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인지? |

<표 3> 연구문제의 질의 내용(계속)

| 연구문제 | 설문내용 |
|---|--|
| 연구문제 3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참여 의향 | 1. 일자리사업 프로그램으로 현재 교육받고 있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다면 보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 들어보았는지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참여의향이 있으신지요? |

연구문제 1에서 3까지의 연구문제별 분석을 실시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인 교육/복지형과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출한 의미소분석 결과<표 4>를 제시하고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내용분석법에 근거하여 그 결과에 기반 한 명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4>에 제시된 면접자들의 구체적인 답변내용을 기초로 한 의미소 분석은 교육/복지형과 공익형의 두 가지 일자리사업 유형에 따라 구분을 두어 관심 강도(●:높음, ⊙:보통, ○:낮음)로 표기하였다. 공통으로 제시된 항목이 두 유형 사이에 많았기 때문에 12 표본의 의미소 분석에서 보다 자주 언급되고 강조 정도에 따른 관심강도의 표기를 선택하였다. 관심정도 표기로서 숫자보다는 상징성이 노인들의 심리적 관심도를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4> 의미소 내용분석법 수행결과 추출 키워드

| 질문 항목 | 유형 | 키워드 | 관심 강도 |
|-----------------------------------|------------|---|----------------------------|
| 연구문제 1: 일자리사업 경제사회적 참여동기 | 교육 /복지형 | 절대적인 생활비, 용돈벌이/경제활동 의미, 재미와 월급 모두 가짐 사회참여, 사회기여, 세상과의 교류, 여유시간이 너무 많음. 재미,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부재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보람 노인끼리 서로 돕기/내 가족처럼 돌보기 | ● ● ○ ⊙ ⊙ ⊙ |
| | 공익형 | 절대적인 생활비/용돈벌이, 첫 월급에 대한 큰 기대감, 경제활동의 의미 재미와 월급 모두 가짐 사회참여/재능기부/사회기여 새 경험에 대한 기대, 재미 | ● ⊙ ⊙ ○ |
| 일자리사업 만족도 | 교육 /복지형 |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직 자부심 작은 돈이지만 의미 있는 노후생활 계획, 동일프로그램 참여자와 정기적인 교류와 미팅을 가짐, 자격증 공부. 업무분야의 전문성, 안심 일의 지속성, 꾸준한 진출 점진적 학습, 지속성, 학습성과, 흥미 증진, 자격 요건, 안심, 긍정적 평가 | ● ● ⊙ ⊙ ⊙ ⊙ |
| | 공익형 | 꾸준한 진출, 일의 지속성 긍정적 평가 작은 돈이지만 의미 있는 노후생활 계획 선배 교육자들의 경험을 잘 파악하고 있음 | ● ⊙ ● ○ |

<표 4> 의미소 내용분석법 수행결과 추출 키워드(계속)

| 질문 항목 | 유형 | 키워드 | 관심 강도 |
|--|------------|--|----------------------------|
| 연구문제 2: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배경 | 교육 /복지형 | 경제적으로 도움이 됨, 자식들로부터 경제적 독립, 현재 월 20만원, 임금수준이 낮음, 월 40만원 기대, 건강한 삶과 인생의 새로운 의미 찾음, 사회기여 부부동거, 배우자의 지지, 자녀의 지지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고 의미있는 일, 오랜 수명에 따른 삶의 의미, 건강한 삶과 인생을 의미함 노노케어는 서로 도움이 됨, 오랜직장 생활에 따른함이 힘듦 건강하니 일을 해야 함, 정부사업에 대한 신뢰, 믿음 | ● ● ● ○ ○ ○ |
| | 공익형 | 현재 월 20만원, 임금수준이 낮음, 월 40만원 기대, 경제적으로 보탬, 도움이 됨, 자식들로부터 경제적 독립 배우자의 지지, 자녀들의 지지가 큼 자녀가족을 도와줌 평생직장 생활 건강하니 일을 해야 함, 건강한 삶과 인생의 의미 전업주부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함 | ● ● ○ ○ ○ ○ |
| 연구문제 3: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참여 의향 | 교육 /복지형 | 사회적 기업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일자리사업과 유사함 더 전문화된 자격증 소지 필요 여부, 많은 공부 필요함 소득이 더 많은지 여부가 중요함, 경제적 여유로움 다양한 직업군 열악한 환경의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적 기여, 일에 대한 성취감,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 재능기부, | ○ ● ● ○ ○ |
| | 공익형 | 경제적 여유로움, 소득이 더 많은지 여부가 중요함, 수익성이 매우 중요함 실수에 대한 걱정, 스트레스가 많을 듯 공공성, 상부상조, 일에 대한 성취감 | ● ○ ○ |

2. 명제의 제시 및 분석

1) 명제의 제시

(1) 일자리사업 참여의 경제적 사회적 동기 및 일에 대한 만족도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동기는 여유시간이 많아짐에 따른 경제활동 영역에 대한 참여와 사회교류활동을 통한 사회적 참여의 두 동기요소가 모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과정에서 오는 재미와 생활비를 벌 수 있고, 자신의 오랜 경험을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의미 있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사업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전문적 교육에 대한 자긍심이 나타났으며, 약자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과 직무분야에 대한 경험공유와 같이 직업역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직무소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은 점진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은 장차 자신이 수행해야 할 아동보육, 노인조력, 급식보조 등 사회적 니즈가 많은 업무이니만큼 일자리 확보에 대해 낙관적이고 긍정적 자세를 갖고 있었지만 한번 시작한

일이니 만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이었다.

사업유형별 일자리 사업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교육형/복지형과 공익형 모두 경제적 생활비, 용돈별이, 경제적 도움이 되는 경제적 취업동기 모두 강력한 관심강도를 제시하였다. 교육/복지형의 경우는 사회참여 의지, 세상과의 교류 등도 강한 관심강도를 제시하였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부재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보람, 노인끼리 서로 돕기/내 가족처럼 돌보기가 중간정도의 관심강도를 보인 반면, 공익형의 경우 이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노인들의 취업활동 참여 동기로 생활비 보탬을 가장 높은 참여요인으로 제시한 이소정(201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지만, 두 유형 모두에서 비경제적 참여 역시 중간정도의 관심강도를 보여 소득보다는 사회참여, 기여를 강조했던 김옥희(2009)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일의 만족도에 따른 일자리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복지형의 경우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적 자부심과 작은 돈이지만 의미 있는 노후생활 계획이 매우 강한 관심강도를 보인 반면, 공익형의 경우 꾸준한 진출과 작은 돈이지만 의미 있는 노후 생활 계획이라는 점에서의 만족도에 매우 강한 관심강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삶의 질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도가 미치는 영향력을 제시한 한석태(2008), 김소향·이신숙(2009), 박평(2013), 천재영·최영(2014)의 연구와 일치한다.

명제 1: 1) 노인들의 일거리사업 참여는 노인들의 은퇴 후 경제적 생활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경제생활의 보조에 가장 큰 순위를 두며,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여, 재능기부와 같은 자신의 경험을 공공서비스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식이 증가될 것이다. 2) 아동교육 및 어르신교육 파견업, 보육 및 급식돌보미등 민간 비즈니스 분야가 수익성 약화로 인해 참여가 저조한 사회적 공공성 분야에 의미 있는 참여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업종의 다양화, 개인적 재능 및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직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3)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들의 취업분야가 노인, 아동생활에 대한 부양업무와 같이 필요 불급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참여자들은 안정적인 직업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향후 노인참여자들의 경험과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자긍심으로 고취시킬 수 있는 자격증,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과 노인복지금을 복원하여 월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개인특성에 맞는 전문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을 정립하면 일자리사업이 현실적인 노인 재취업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배경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모두 배우자가 있었으며, 현재 월 20만 원 정도의 보수는 적다는 의견이 대부분이 이며, 이들 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은 월 40만 원 정도로 현재의 2배 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이전 직장 경험자가 12사례 중 10사례이며, 남성노인들은 모두 유경험자였고 여성 노인들은 8명중 6명이 직장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사업 참여 동기로 직무경험이 일자리

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해석에 대하여 양정선(2013)은 낮은 교육수준의 베이비부머들이 퇴직 후 경제활동을 더 많이 희망한다는 연구결과에서 한국의 경우 낮은 교육수준은 낮은 경제수준과의 일정한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은퇴준비를 하지 못한 계층의 은퇴이후 재취업니즈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상자 12명중 10명이 경제적 도움이 가장 크다고 답하였고, 2명은 사회경험과 경제적 도움이 동일한 수준의 참여요인으로 응답했으며, 10명의 경제적 도움이 가장 크다는 노인 중 8명은 사회적 기여, 재능기부 요인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걸어온 수명과 연계하여서도 직장생활에서의 은퇴이후 시간관리 및 생활의 의미를 찾는 것도 참여동기로 분석되었다. 또한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자리사업 참여에 대한 배우자와 자녀들의 정서적 지지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독립과 건강한 삶과 나누는 인생의 의미가 경제활동 필요성과 함께 참여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사례에서 독신사례는 없었지만 일자리사업이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절대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성 독신 노인들의 경우 독신 남성들에 비해 수명이 더 길며, 경력단절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절대빈곤에 빠지지 않기 위한 공공정책으로서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자리 유형별에서 교육/복지형의 경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됨, 자식들로부터 경제적 독립, 임금수준의 개선 등의 경제적 니즈와 건강한 삶과 인생의 새로운 의미 찾음, 사회기여, 부부동거, 배우자 및 자녀의지지 모두 강한 관심강도로 나타났고, 공익형의 경우 동일하게 경제적 니즈가 강한 관심강도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중간 관심강도에서는 교육/복지형의 경우 은퇴이후 삶의 의미, 건강한 삶과 인생의 의미로 제시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제시된 것과 비교하여 공익형의 경우 평생직장을 가져야 하는 의식이 중간 관심강도를 보였다.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참여배경에도 배우자의 지지와 가족의 지지와 같은 가족환경적 요소는 두 유형모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 선행연구에서 배우자의 존재와 정서적 지지가 삶의 질, 노인일자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직무만족에 중요한 요인을 제시한 김옥희(2009), 이경진·황선영(2012), 이소정(2012), 이주미·김태완(201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제 2: 1) 노인일자리 사업은 재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월 36-40시간에 20만 원이라는 매우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시 수익창출보다는 복지사업으로 인식되어 소일거리나 사회참여 정도로 인식되어 왔다. 일자리사업 참여 니즈로서 건강한 삶의 유지, 사회에 대한 기여도 참여요인으로 제시되었지만 현재와 향후 모두 경제생활 위기의 극복이라는 경제적 목적이 적극적인 은퇴이후 재취업의 동기가 될 것이다. 2) 일자리 유형으로 구분한 교육/복지형과 공익형 모두 자녀를 비롯한 배우자와 노인 당사자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정서적 공유와 지지는 노인들이 삶의 여유를 가지면서 경제활동에 재 진입함에 있어 매우 강력한 동기요인으로 부각될 것이다. 3) 노인들의 산술적 측면의 경제수준은 은퇴이전 가계에 비해 비록 낮지만, 이들 노인들의 일자리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동기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과 사회참여와 자기발전의 비경제적 요인이 공존할 것이다. 향후 월 20만 원이라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 임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직무역량에 따른 임금수준을 올릴 수 있는 질적 측면의 일자리사업의 다양성이 요구될 것이다. 일정 노동시간을 보장해주며 최소한의 일자리 보장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적/비경제적 요인 모두의 강화를 통해 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증가 및 노인의 경제적 복지를 안정/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 참여의향

노인들은 비즈니스 수익성 부분을 강화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 일자리사업과 형식면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나, 일반 기업과의 유사성이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사업과 차이 측면에서 민간 기업처럼 수익성이 더 강조된다는 점에서 추가 소득 가능성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점은 생활비마련이라는 노인 재취업이 동기에 노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동시에 민간기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의 직종보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더욱 전문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일자리사업 모두 노후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자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노인들은 일자리 사업보다 규모가 큰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직업군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노인소비자들 모두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호부조라는 공공성의 관점을 이해하고 상부상조, 재능기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일자리 유형별에서 교육/복지형의 경우와 공익형 모두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시 고려할 요소로서 일자리사업 보다 소득의 증가 가능성과 경제적 여유로움에 대한 기대가 매우 강한 관심강도를 나타냈으며, 차이는 교육/복지형의 경우는 경제적 동기와 함께 강한 관심강도로 전문화된 자격증 소지 필요 여부, 많은 공부가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반면 공익형의 경우 중간 관심강도로 사회적 기업 업종에서의 실수에 대한 걱정, 업무에 대한 더 강한 스트레스 예측이라는 업무에 대한 걱정이 교육/복지형 보다 더 많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노인들은 경제적 동기에 의해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노인소비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로서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을 제시한 김상호(2008), 이정봉(2010), 심창학(2007)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였다.

명제 3: 1) 향후 사회적 기업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기여하는데 있어 큰 도움을 줄 것이지만, 장애인 및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서는 일자리사업과 맥을 같이할 것이다. 일자리사업보다는 업무의 수익성이 강화되고 일반 민간기업보다는 공공성이 강한 일자리사업과 민간수익기업의 중간 영역이므로 일자리사업에서 한정적인 직업군과 비교하여 다양한 직무분야에 대

한 진출이 증가될 것이다. 2) 본 면접분석에서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 참여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이 임금수준과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과 충분한 근무시간 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자리사업의 단순직에 비해 개인의 은퇴이전 근무경험도 살리고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임금수준의 제공가능성이 보다 크다는 점에서 노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의 더 많은 출현이 필요하다. 이들 사회적 기업은 노인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분야의 직무 교육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참여 의향이 있는 노인 소비자들은 일에 대한 더 많은 성취감과 경제적 보상을 기대할 될 것이다. 현재도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통해 고용되는 노인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에 있어서 이들 두 정책은 사회복지 및 개인의 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향후 더욱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3) 일자리 유형인 공익형 참여 노인들의 사회적 기업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업무역량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준비 프로그램 교육을 도입 등으로 경제적 필요가 강한 노인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소득기회 창출의 출구가 될 것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노년기 소비자들의 경제생활 위기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경제생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소비자들의 참여유형인 교육/복지형과 공익형을 기준으로 은퇴 이후 재취업의 사회경제적 참여 동기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 소비자들의 재취업 참여 동기, 경제활동 참여 배경과 재취업 활성화의 관점에서 일자리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회적 기업의 참여의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소비자의 재취업의 참여요인 및 노인소비자 가계의 경제생활과 연계성을 확인하고 중년가계의 향후 노후 생활 및 재취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 참여 방향에 대한 탐색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표적면접법(FGI)을 수행하여 내용분석법에 기초한 의미소분식으로 중요 키워드를 추출해냈고, 그에 대한 명제를 제시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비자가 은퇴이후에도 일거리사업을 통한 재취업에 참여하는 가장 큰 경제사회적 동기는 교육/복지형과 공익형 참여 노인들 모두 일자리사업 참여 동기로 근로소득의 필요성이 가장 큰 관심도를 보였으며 사회교류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도 참여 동기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비 확보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한 니즈가 재취업에 뛰어들게 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일자리 유형에서 교육/공익형은 일자리 사업의 공공성과 교육성을 포함한 전문적인 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긍심과 함께 해당 분야의 직무경험을 선배 프로그램 수행자와 공유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둘째,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배경으로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은퇴이전 직업경험이 일자리사업 참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소비자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활동 보완책으로 시간제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공공정책에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교육/복지형과 공익형 참여 노인소비자이 배우자나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같은 경제적 요인과 함께 참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노인 소비자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참여의향에 대해 노인소비자들은 민간기업과 같이 수익성을 보다 강화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형식면으로는 노인 일자리사업과 유사한 판단을 하였고, 교육/복지형 참여 노인소비자들은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교육과 전문적 소양의 요구를 인식하였고, 더 높은 임금수준은 두 유형 모두에서 공통으로 중요한 강한 관심 기대로 나타났다. 동시에 일자리사업과 사회적 기업 모두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두 제도의 공공정책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비와 상대적으로 낮은 노후준비는 60세 이상의 고령 노인소비자가계의 구조적인 경제적 위기를 가져왔고, 자녀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인들이 취업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소비자들의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의 경제적 위기의 해소와 삶의 여유를 가져오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월 20만 원의 임금수준으로는 타 근로 및 은퇴소득이 없는 가계의 경우 최저생계 이하의 경제 위기를 감내해야 되는 상황임에 따라 향후 근로조건 개선은 긴급히 개선되어야 할 상황이다. 현재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공헌형의 경우 월 30-40만 원으로의 임금수준 향상이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가시적인 정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복지예산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형편이다. 또한 일자리사업은 1년 중 한정된 기간에만 일을 할 수 있고, 일의 지속성과 충분한 일 양이 부족한 상황이 노인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족 요인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상의 제약요건은 있지만 민간 비즈니스 영역과의 협약이나 일자리사업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시킴으로써 근로조건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고찰에서 타 연령대비 낮은 임금수준 및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낮은 연금 수혜율을 고려할 경우 재취업을 고려한 양적, 질적 측면의 일자리사업 임금수준과 일자리사업 직군을 보완한다면 더 많은 노인소비자들이 재취업 사업에 참여하여 노인 소비자들의 경제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대안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기여점으로 일반적으로 노인소비자의 경제적 위기를 소득수준, 자산규모, 연금수준 등 사회경제적 지표로만 분석하는 연구들에 비해 본 연구는 노인소비자 가계의 경제적 위기 현황을 사회통계 지표로 분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노인 재취업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노인들의 사회공공정책의 참여 동기를 일자리참여 유형인 교육/복지형과 공익형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

였다. 노인복지기관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들은 가계소득 수준이 높지 않으며, 일생동안 일군 자산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점이 노인복지기관의 일자리사업이 노인들의 재취업의 경제사회적 동기를 분석하기에 타당한 기관으로 선정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취업 사례를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참여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노인들의 경제적 지위(status)는 본인과 배우자, 가족원 전체의 전 생애주기 동안의 누적된 결과로 갑자기 변화할 수 없으므로 노인소비자의 경제적 위기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보다 현실적인 공공정책에 입각한 재취업 기관의 현황 및 재취업 동기를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동기 분석결과는 장차 노년기에 접어들 중년기 소비자들이 직면해야 할 재취업 기관의 직업프로그램의 구성, 임금수준, 운영방안 및 향후 정부의 공공 노동정책의 방향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소비자들은 사회경제적 편차가 매우 클 수 있다. 경제적 위기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안정된 노후준비상태의 노인가계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통계자료에서 노인 소비자 가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불안정한 경제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이는 노후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본 연구가 재취업의 동기 및 재취업의 개선방안 및 영역의 확대를 연구한 연구배경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면접 노인들에게 예민한 경제관련 질문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고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 참여자를 연구에 참여시킴에 있어서 배우자 유무, 주택유무, 사회경제적 지위 등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고려하여 독신노인소비자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키려 하였으나 모든 대상자들이 배우자가 있는 면접대상자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연구 제한점에 입각하여 향후 연구로는 노인 소비자의 경제적 위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경제활동 참여 노인 소비자들의 지역적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참여 동기에 대한 확대된 면접법이나 실증연구를 통해 더욱 객관적인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들어 노인 소비자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들의 숙련된 직무능력과 경험,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시니어 창업 방안에 대한 정부지원등도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비중 증가에 따라 향후 경제활동 참여하는 노인 소비자 가계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노인 소비자 가계의 경제생활만족도는 한국사회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 영역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08. 사회적 기업 3주년 성과. 서울: 고용노동부.
 박선화. 2009. 2007 인증 사회적 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 기업연구. 2(1): 37-65.

- 권혁성, 신기철. 2013. 우리나라 중·고령자 노후준비실태 및 시사점: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제4차 국민노후보장학술대회.
- 김상호. 2008. 장애인 일자리 지원서비스와 연계를 통한 노인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회복지논집. 27(2): 152-153.
- 김연정. 2011. 사회적기업과 소셜 벤처를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탐색적 고찰. 한국창업학회지. 6(4): 25-46.
- 김옥희. 2009. 대도시 노인 일자리사업이 참여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08(1): 89-115.
- 김재호. 2013. 중고령자 노동시장 재진입과 빈곤결정요인 분석: 가교일자리 중심으로. 제4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 김진곤. 2009.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적 과제. 한국사회정책학. 16(1): 81-121.
- 문숙재, 김순미, 김연정. 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6.
- 박상현, 강태일. 2013. 공적연금제도가 가계재정과 수급자만족에 미치는 효과분석: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4차 국민노후보장학술대회.
- 박소희, 전영준. 2013. 국민연금제도에 따른 고령자 은퇴결정 분석. 제4차 국민노후보장학술대회.
- 보건복지부, 한국인력개발원. 2006. 200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안내. 보건복지부, 한국인력개발원.
- 부정남. 1984. 내용분석의 발전과정. 신문화보. 17: 125-131.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4. 한국의 성별 연금격차 현황.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심창학. 2007.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의 및 범위설정에 관한 연구: 유럽의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3(2): 61-85.
- 양정선. 2013. 베이비부머의 노후 경제활동 희망과 정책적 지원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18(2): 59-79.
- 이소정. 2012. 노인의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2: 17-25.
- 이소정. 2013.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가 노인의 사회관계에 미치는 효과분석. 노인복지연구. 59: 331-354.
- 이정봉. 2010. 사회적 기업의 노동조건 현황과 과제. 노동과 사회. 3-4: 58-64.
- 이주미, 김태완. 2014.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과 자산빈곤실태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212: 64-73.
- 이철선. 2011.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과 향후 이슈. 세대간 일자리 공유를 위한 진단과 해법토론회 자료집.
- 장지연, 신동균, 신경아, 이해정. 2009. 중고령자 근로 생애사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 2014. 서울: 통계연보. 통계청.

- 통계청. 2014. 서울: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통계청.
- 사회적기업연구원. 2011. www.rise.or.kr
- 최아름, 정홍주. 2013. 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33: 29-57.
- 천재영, 최영. 2014.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참여자의 일자리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30(3): 245-274.
- 한국경제연구원. 2014.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정성 비교. 한국경제 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2014.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고용구조 및 소득. 한국노동연구원.
- 한석태. 2008. 노인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의 비교. 한국행정학보. 42(3): 441-461
- 현대경제연구원. 2014.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Shea, D. and S. Crystal. 1990. Cumulative Advantage, Cumulative Disadvantage, and Inequality among Elderly People. *The Gerontologist*. 30: 437-443.
- Harwood, T. G. and T. Garry. 2003. An Overview of Content Analysis. *The Marketing Review*: 3: 479-498.
- Kolbe, B. M. and M. S. Burnett. 1991. Contents Analysis Research: An Examination of Application with Directives for Improving Research Reliability and Objectivity. *J. of Consumer Research*. 18: 243-250.
- Neurendorf, K. A. 2002. *The Content Analysis Guidebook*. London: Sage.

김연정: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관리 및 소비자경제 분야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논문: 노후준비의 관점에서 본 가계 재정상태의 구조적 분석. 1998년 2월), 현재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디지털기술경영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화콘텐츠비즈니스 경쟁력 분석, 창업 및 인터넷 마케팅, 디지털컨버전스가 주요 관심분야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캐릭터 문화콘텐츠 산업의 권역별 입지 경쟁력 분석에 대한 종단적 연구(2013)”, “사회적 기업의 현황 및 정책분석: 한국, 일본, 유럽 및 미국의 노인고용창출을 중심으로(2012),” 등이 있다(yjkim@hoseo.edu).

